

# 삼성석유화학, 중동에 PTA 기술 수출

## Sabic 계열사와 3월말 계약 ... 30만톤 증설하는 디보틀네킹에 적용

삼성석유화학이 사우디에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기술을 수출키로 해 주목된다.

삼성석유화학은 사우디 Sabic의 계열사 Ibn Rushd에 1200만달러 상당의 기술 수출계약을 3월 말 체결할 예정이라고 3월17일 발표했다.

PTA 기술 수출은 사우디 Yanbu에 위치한 Ibn Rushd의 PTA 40만톤 플랜트를 70만톤으로 증설하는 디보틀네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으로 삼성석유화학은 앞으로 약 7개월간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증설 이후 모든 공정의 성능보장 작업도 수행하게 된다.

삼성석유화학 관계자는 “독자기술을 확보해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국내 PTA 생산기업 가운데 처음”이라며 “35년간 플랜트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지식자산으로 전환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석유화학은 사우디에 이어 인디아, 중동, 남미 등의 PTA 신증설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8>